

# 김 스낵, 저칼로리·건강식품으로 인기

자카르타지사

## 수퍼푸드급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조미김

- 「폴라리스 리서치 보고서(Polaris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건강스낵 시장은 2026년까지 약 407억 달러(약 45조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중 호주 내 건강스낵으로 취급받고 있는 수입 김 시장은 2017년 2,600만 달러(약 289억 원)로 전년 대비 3% 상승했다.
- 주요 수입국 가운데 1위는 중국이 1,790만 달러(약 200억 원)로 68%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522만 달러(약 58억 원)로 20%를 차지하며 2위에 올랐다.
- 2017년 전 세계 한국 김 수출액은 국내 생산 농수산물 중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5억 달러(약 5,566억 원)를 넘어섰으며, 청정 농산물로 유명한 호주에서도 한국 조미

김이 슈퍼푸드로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 호주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기도

-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및 유기농 식품점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달거나 짠 자극적인 식품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 및 친환경 재료로 생산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낵으로 먹는 한국산 김 스낵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 현지 소비자들은 학교 간식용으로도 김 스낵 또는 조미김(도시락김)을 구매한다. 이에 따라 호주기업들도 한국 OEM으로 생산된 김 스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한국수출업체 제품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매장 내 판매중인 조미김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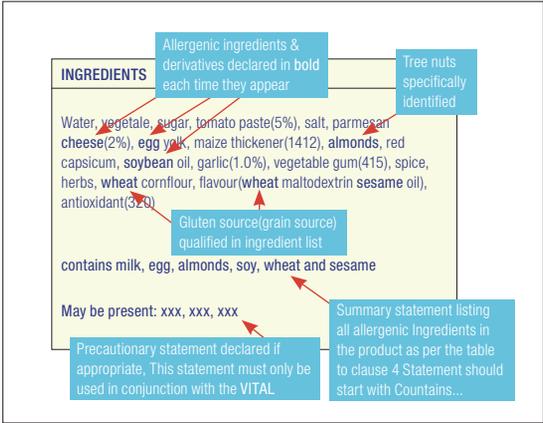
한국 OEM 판매 제품



### 김 식품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라벨

• 호주는 식품 통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성분표, 호주 규정에 따른 영문라벨 사전 준비가 필수이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 따르면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 성분\*이 주원료 및 첨가제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0가지 식품성분 : 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깨, 밀, 생선, 갑각류, 콩, 루핀콩



라벨 표시 예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첨가된 식품도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라벨링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 호주로의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전 제품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김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포함되지 않으나, 아몬드 김 스낵 등 첨가물로 추가된 경우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 해산물, 견과류, 밀, 우유, 땅콩, 갑각류, 루핀, 콩, 알류, 참깨

### 독자적인 브랜드이미지 구축해야

• 호주 시장 내 유통되고 있는 김 스낵의 경우 한국 외 타국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한국제품만의 독자적인 상품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현지 시장의 꾸준한 진입을 위해 건강한 식재료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호주 소비자들의 입맛과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기농 식품 등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 친환경 포장을 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aT 자카르타지사 자체조사  
호주, 한국산 조미김 인기급증, www.foodbank.co.kr (2018.06.15.)  
Food & Beverage Market Research, www.whatech.com (2018.11.21.)